

성격유형의 임상적인 특징에 관한 일 연구

박 경 김 명 식 강 문 희

서울여대 학생생활연구소 용인 정신병원 서울여대 아동학과

본 연구는 MBTI 및 MMPI를 동시에 실시한 467명을 대상으로 이에 나타난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MMPI 상에서 우울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심리유형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를 개괄하였으며, 사용된 자료의 분석은 MBTI의 각 지표와 MMPI의 임상척도간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MBTI의 각 지표와 심리유형별 변량분석 그리고 우울증을 보이는 집단을 판별하기 위한 판별분석등이다. 이 결과 MBTI의 E지표가 MMPI의 Ma와 I지표는 MMPI의 D, Pt, Sc, Si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8가지 심리유형에 따른 MMPI상의 나타난 정신병리 가설은 내향적 사고형의 사고의 경직성과 완고성, 내향적 감각형의 강박적인 증상, 내향적 감정형의 우울 경향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밖의 유형에서는 정신병리 특징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MBTI상에 어떠한 특징을 보일 것인지를 연구한 결과, I와 J값이 증가할수록 우울집단에 할당될 확률이 커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8가지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특정한 병리적 증상으로는 우울한 집단들의 심리유형을 검토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임상집단의 심리유형 특징에 관해서도 연구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융의 성격유형과 정신병리

융은 인간은 선천적인 성격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성격의 경향성은 환경의 여러 자극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사람의 독특

한 성격의 유형체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임상적인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개인의 성격 유형을 태도의 차원인 외향성(extraversion)-내향성(introversion), 태도의 차원인 감각(sensation)-직관(intuition), 그리고 사고

(thinking)-감정(feeling)을 기본으로 하여 8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융(1971)은 심리유형에 따른 병리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외향형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특징은 히스테리(hysteria)로 보았다. 즉 자기 자신을 흥미 있는 일에 집중토록하고 타인들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 보다 태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에게서는 신경쇠약증(Psychasthenia)이 생기기 쉬운데 이러한 경향은 이들이 주위의 사물과 자신에 주관적인 견해를 앞세워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외향적 감각형은 억압된 직관이 투사의 형태로 작용하여 다양한 미신적인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박증과 공포증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외향적 직관형에서 생기기 쉬운 신경증은 강박적인 건강염려적 사고나 공포증을 들수있다. 외향적 직관형의 장애는 투사로서 억압적인 직관은 직관적인 두려움, 불길한 육감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초래하며(Whitmont,1978; Myers & McCaulley,1986) 이러한 사고가 심화되면 망상이 나타날 수도있다(Marshall, 1968). 반면에 외향적 감정형은 유아적인 성욕을 무의식 수준에 갖는 히스테리 신경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외향적인 사고형은 지나치게 외부 사물에 대한 사고에 집착하여 개인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가정에 이르는 경향이 있고, 감정은 몹시 보수적이고 인색함을 나타낸다.

내향적 감각형이 잘 나타내는 신경증은 강박 신경증이며 내향적 직관형에게 흔히 보이는 신

경증은 건강염려증상이나 감각기관의 과민 상태이다. 내향적인 감정형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경증은 신경쇠약과 우울이며 내향적인 사고 성향이 강해지면 사고의 경직성, 완고성, 지나친 주관성을 보이기 쉽다.

성격유형과 정신장애에 관한 연구

융이 언급한바 있는 성격 유형과 정신병리에 관한 입장은 성격유형과 성격장애와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Ekstrom,1988;이재갑,1993)와 성격유형과 융의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Linton Kuechenmeister & Kuechenmeister,1982, 1986; Kelly, 1991; 박경, 김명식, 1995; 심혜숙, 이숙미, 1996)등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연구된 바 있다. 첫번째는 성격 유형과 성격장애와의 관계를 밝히는 일련의 연구이다. 물론 정신의학의 진단준거에 의한 성격장애와 성격유형을 동일한 체계로 볼 수는 없으나, 성격장애 여러 유형과 융의 성격유형과는 상호 관련되어있을 가능성은 높다. 예컨대 외향적 감정형은 히스테리성격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성격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자는 Ekstrom (1988)이다. 그의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바있는 융의 성격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 그리고 Millon(1985)의 성격유형론을 기초하고 있다. Millon은 기본 성격 유형을 비사교적, 회피적, 복종적, 사교적, 자기애적, 공격적, 순응적, 부정적인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이같은 성격이

병리적인 성격으로 확장되면 비사교적인 성격은 정신분열성으로, 회피적인 성격은 그대로이며, 복중적인 성격은 의존적인 성격으로, 사교적인 성격은 연기적인 성격으로, 자기애적인 성격도 그대로이고, 공격적인 성격은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순응적인 성격은 강박적인 성격으로, 부정적인 성격은 수동-공격적인 성격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Ekstrom(1988)은 이를 토대로 융의 심리유형론과 DSM-III의 성격장애와의 비교연구를 시도한 바있다. Ekstrom은 외향적 사고형은 일반적인 특성이 원칙주의, 이상주의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으로는 교조주의, 외곺수이고, DSM-III의 분열성 성격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 사고형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특징은 독립, 완고성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지나친 걱정이고, DSM-III의 회피성격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외향적 감정형의 일반적인 특징은 순응과 실용성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해리나 피상성, 과잉반응으로 DSM-III의 히스테리 성격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인 감정형의 경우 일반적인 특징은 동정, 조화이며 부적응 특성은 의존성과 우울이며 DSM-III의 의존적인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외향적인 감각형의 일반적인 특징은 현실성과 즐거움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쾌락주의, 경직성이고 DSM-III의 수동-공격성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 감각형의 경우 일반적인 특징은 절도있고 조용하며 부적응적인 특징은 방어적이고 냉담하며 DSM-III의 강박적인 성격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외향적인 직관형은 일반적인 모험심, 자발성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무책임과 불안정이고 DSM-III의 반사회적인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내향적인 직관형의 일반적인 특징은 공상적이고 예언적이며 부적응적인 특성은 과대망상, 자기몰입이고 DSM-III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재갑(1993)은 이러한 Ekstrom의 연구 결과와 다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심리유형과 성격장애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았을 뿐 아니라 판단형이면서 사고나 감정에 뚜렷한 선호를 보이지 않는 혼란형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적응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바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혼란형이 비혼란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불안을 보였으며 외향적인 직관형과 반사회적 장애척도, 외향적 감정형과 히스테리장애 척도, 내향적 감정형과 의존적인 성격장애 척도, 내향성과 분열성 성격장애 척도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재갑의 연구는 MMPI의 성격장애 척도로 성격장애를 측정하였으나, 이 척도의 검사의 타당성은 아직 분명히 검증되어 있는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연구가 심혜숙, 이숙미(1996)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MMPI의 임상척도상에 나타난 심리장애와 MBTI에서 혼란형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심리적 기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MMPI의 임상척도 점수와 MBTI의 혼란형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낼 수 없었고, 내향적 직관형과 내향적 감정형에서가 다른 유형보다 강박증 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연구는 MBTI 연구가 정상인의 심리적 유형을 측정하는 검사로 개발되었

기 때문에 이를 임상과 치료 장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Kelly(1991)와 유사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경, 김명식(1995)의 MBTI, MMPI, 16PF를 통해서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MBTI의 내향성 지표와 MMPI의 D, Si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융의 내향성이 일관성있게 검증되는 성격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타당도 연구(최윤경,1993) 결과에 나타난 극단적인 내향형을 대표하는 비사회적인 척도와 MMPI 임상척도 및 16PF척도와의 상관 연구와도 일치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MBTI가 연구의 여러 제한점으로 MBTI의 상담 및 임상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보고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융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한 정신병리에 관한 연구가 임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를 토대로 MMPI의 단독 사용에 의한 환자의 이해와 진단보다는 MMPI와 MBTI를 병행하여 사용될 때 진단과 상담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Linton, Kuechenmeister & Kuechenmeister,1982, 1986).

융의 심리유형론과 임상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서는 임상 환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과 정상인들 가운데 임상적 진단에 속하는 집단을 분류하여 이들의 심리유형적인 특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한 병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나 피험자의 성격유형을 살펴 봄으로써 성격 유형검사의 상담 및 임상에서의 활용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융의 심리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검증함과 동시에 내향성 성격유형과 우울에 대한 이론과 그 배경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성격유형과 우울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려한다.

성격유형과 우울과의 관계

성격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정신역동적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입장과 성격 측정 연구에 근거하여 성격과 우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먼저 정신역동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Abraham(1960)은 처음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항문기' 기질이 우세한 강박적 신경증과 유사함을 언급하였다. Chodoff(1972)도 우울하기 쉬운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보면 강박적이고, 의존성이 중심적인 특성이라 보았으며 이들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우울은 정상적기도 하고 병리적이기도 한 문제이다. 정상적인 우울은 성격의 자연스러운 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기 비난이나 무망감, 심한 의욕의 상실에 의한 정신운동지체를 나타낼 때는 병리적인 우울 상태에 해당된다. 융은 리비도 이론에 근거하여 우울증을 정신 에너지의 양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즉 우울을 자아가 유지해 왔던 적절한 에너지의 감소로 보았다. 이러한 에너지의 감소가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융은 우울의 역동을 리비도가 내부로 향해 대상 세계로부터 분리 됨으로써 무의식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되고,

이것이 내향성 개념과 통한다고 하였다. 우울은 내향화된 경험을 통해 성격을 재정향하려는 정신적인 시도로 보았으며, 병리적인 우울은 이러한 재정향에 있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비자발적으로 강요된 것으로 설명하였다(Steinberg,1989).

심리측정 연구에 근거하여 우울과 성격과의 관계를 밝힌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우울한 사람들의 특성을 Von Zerssen(1977)은 양심적이고 관습적이며 성취 기준이 높은 내향형 사람들로 보았다. Cadoret(1971)는 40대 이후 발병한 우울증 환자들이 Cattell의 성격검사(16PF)에서 초자아가 강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Metcalfe(1968)는 Eysenck의 성격 검사로 우울증 환자와 통제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울증 환자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근심이 많고 긴장되어 있으며 경직성과 관습적인 태도를 보였다. Hirschfeld와 Klerman(1979)의 우울증 연구에는 다양한 자기 보고식 성격진단 검사가 사용된 바 있다. 이 결과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은 Maudsley 성격검사에서는 내향성, Lazare-Klerman-Armor 검사에서는 강박증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우울증상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내향성, 자기확신의 부족, 비주장성, 의존성, 근심이나 강박경향으로 대표된다. Kelly(1991)은 MBTI를 통해 정서장애의 성격특징을 연구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행동장애와 우울과 불안울 지닌 정서장애 피험자는 I와 T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E와 F가 유의하게 적었다. 동시에 IJ, IP, ST, IS가 유의하게 많았고, EP, EJ, FP, EN, ES가 유의하게 적었다. 16가지 유형

가운데는 ISTJ와 ISFJ가 많았고, ESTJ가 유의하게 적었다.

이같이 우울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정신병리 상태는 성격을 구성하는 지속적이고 소인적인 기질로 부터 일어난다는 점에도 관심을 두었다(Akiskal, 1983).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 성격 소인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연구로는 우울 증상이 회복된 상태에 있을 때, 성격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검토한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장기적인 치료에 의해 신경증 척도의 감소는 분명했으나, 외향성(융의 외-내향성)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Weissman, Prusoff & Klerman, 1978). 이는 우울증 환자의 신경증 증상은 치료에 의해 경감되었으나 바탕에 지닌 내향적인 성격은 남아있는 것을 반영해 준 연구 결과이다.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융의 이론에 기초한 성격 특성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를 MMPI와 MBTI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하며 이를 토대로 MBTI의 임상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MBTI의 각 지표(E,I,S,N,T,F,J,P)가 MMPI의 임상척도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

둘째, MBTI의 8개의 유형별로 MMPI의 임상척도 점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

가 있는가?

셋째, MBTI의 8개의 지표로써 MMPI 점수에 의한 우울증 집단과 정상인 집단을 변별해 낼 수 있는가?

방 법

1.연구대상

서울시내 1개 대학에서 1994~6년동안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여자대학생들 4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의 평균연령은 20.9세였다.

2.연구도구

1)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C.G.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Catharine C.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개발한 성격검사이다. 원래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서는 판단-인식에 의한 성격유형은 언급되지 않고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감정-사고의 3가지 지표에 의한 8가지의 성격유형만이 있었는데, MBTI에서는 Jung 이론의 J와 P의 기능을 확장시켜 16가지의 성격유형을 확정 하였다. MBTI 한국 표준판은 미국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의 인준을 얻어 1987년 St.Louis University에서 김정택, 심혜숙 박사가 번안,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1990년에 완성하여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MBTI는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향성(Extroversion:E), 내향성(Introversion:I), 감각(Sensation:S), 직관(Intuition:N), 사고(Thinking:T), 감정(Feeling:F), 판단(Judgement:J), 인식(Perception)의 8가지 선호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MBTI 검사에는 자가 채점용(MBTI-GS)과 컴퓨터 채점용(MBTI-GA)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가 채점용 MBTI 검사(MBTI-GS)를 사용하였다. MBTI 영어판 검사(FORM G,1975)에서 반분 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가 EI지표는 .63-.99, SN지표는 .75-.90, TF지표는 .67-.86, JP지표는 .80-.88로 검증되었다. 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에서 EI지표는 .83, SN지표는 .78, TF지표는 .82, JP지표는 .82였다.

2) MMPI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등(1989)이 표준화한 MMPI 표준형을 사용하였다. 3개의 타당도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를 사용하였다.

3.방법 및 절차

먼저 MBTI의 유형을 결정하고 각 지표들의 원점수를 연속점수(표준점수)로 변환시킨 후 MMPI의 척도들의 점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 3.0을 사용하였다.

첫째, MBTI의 지표의 연속점수(표준점수)들과 MMPI의 임상척도 점수들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MBTI의 지표의 연속점수(표준점수)

들의 변량을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탐색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MBTI의 8가지 유형에 대한 MMPI의 척도들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였다.

넷째, MBTI의 8가지 선호도 점수에 기초하여, MMPI점수에 의해 분류되는 우울증집단과 정상집단을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하여 보았다.

결 과

연구집단 467명의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

연구집단의 MBTI성격유형분포를 살펴보면 ISTJ, ESTJ, ISTP, ISFJ 성격유형들의 빈도수가 많았고, ENFJ, ENFP, ENTP, ENTJ 등의 성격유형들이 빈도수가 적었다.

표 1. 연구집단의 MBTI 주요지표별 분포(N=467)

N	%	N	%	N	%	N	%
E	167 35.8	T	316 67.7	ST	237 50.7	SJ	225 48.2
I	300 64.2	F	151 32.3	SF	93 19.9	SP	105 22.5
S	330 70.7	J	293 62.7	NF	58 12.4	NP	69 14.8
N	137 29.3	P	174 37.3	NT	79 17.0	NJ	68 14.5

표 2. 연구집단의 MBTI 성격유형분포(N=467)

ISTJ N=109 %=23.3 	ISFJ N=33 %=7.1 	INFJ N=19 %=4.1 	INTJ N=30 %=6.4
ISTP N=41 %=8.8 	ISFP N=21 %=4.5 	INFP N=25 %=5.4 	INTP N=22 %=4.7
ESTP N=25 %=5.4 	ESFP N=18 %=3.9 	ENFP N=9 %=1.9 	ENTP N=13 %=2.8
ESTJ N=62 %=13.3 	ESFJ N=21 %=4.5 	ENFJ N=5 %=1.1 	ENTJ N=14 %=3.0

1. MBTI 각지표와 MMPI척도점수와의 상관관계

MBTI지표들과 MMPI 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MBTI척도들의 점수를 표준점수인 연속점수로 변환하였다. 그 변환공식은 I·N·F·P지표의 경우 표준점수 = 100 + 각 지표의 환산점수, E·S·T·J지표의 경우 표준점수 = 100 - 각 지표의 환산점수이다.

그러므로 상관관계 해석에 있어, I·N·F·P지표와의 상관관계는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적인 관계는 +, 부적인 관계는 -로 해석하면 되지만, E·S·T·J지표의 경우 그와 반대로 정적인 관계는 -로, 부적인 관계는 +로 해석하면 된다.

표 3에서 보듯이 MBTI의 E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F, Hs, D, Pa, Pt, Sc, Si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K, Mf, Ma 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MBTI의 I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F, D, Pt, Sc, Si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K, Mf, Ma 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MBTI의 S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K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D, Mf, Ma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MBTI의 N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Pa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Mf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MBTI의 T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Pt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Mf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MBTI의 F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Hy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Mf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MBTI의 J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F, Pd, Sc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L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표 3. MBTI 지표와 MMPI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

MBTI 지표 \ MMPI 척도	E	I	S	N	T	F	J	P
L							-.10*	-.15**
F	.24**	.20**					.18**	.13**
K	-.17**	-.18**	.11**					-.10*
Hs	.11**							
D	.40**	.37**	-.10*					
Hy						.11**		
Pd							.13**	
Mf	-.11**	-.15**	-.20**	-.18**	-.14**	-.13**		
Pa	.12**			.10*				
Pt	.31**	.27**			.12**			
Sc	.24**	.14**						
Ma	-.21**	-.37**	-.14**				.10**	
Si	.50**	.62**						

* p<.05, ** p<.01

MBTI의 P지표는 MMPI의 척도들중 F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L, K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2. MBTI의 각 지표에 대한 MMPI 척도점수들의 회귀분석

MBTI의 8가지 지표 E, I, S, N, T, F, J, P에 대한 MMPI 척도들의 설명변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다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계적 방식(stepwise method)을 사용하였다.

1) E-I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E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E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Si척도는 25%, D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1.8%(정적인 관계)였다.

I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I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Si척도는 38.0%였고, Ma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3.7%(부적 관계), F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1.0%(정적 관계), Mf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0.6%(부적 관계), Hy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1.0%(부적 관계)였다.

2) S-N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S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S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Mf척도는 4.1%(부적인 관계), Si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

은 3.2%였다.

N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N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Mf척도는 3.1%(부적 관계), Pt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1.1%(부적 관계), Sc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1.4%(정적 관계)였다.

3) T-F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T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T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Mf척도는 2.1%(부적 관계)였다.

F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F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Mf척도는 1.6%(부적 관계)였다.

4) J-P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

J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J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F척도는 3.4%, Si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이 1.8%(부적 관계)였다.

P지표를 설명하는 MMPI의 척도들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MBTI의 P지표에 대한 설명변량이 MMPI의 L척도는 2.1%(부적 관계), F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1.2%(정적 관계), Si척도의 설명변량증가분은 1.3%(부적 관계)였다.

3. MBTI의 8가지 유형에 따른 변량분석

조사대상 467명을 MBTI의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즉 외향적 감각형(ES-ESTP, ESFP), 외향적 직관형(EN-ENTP, ENFP), 내향적 감각형(IS-ISTJ, ISFJ), 내향적 직관형(IN-INTJ, INFJ), 외향적 사고형(ET-ESTJ, ENTJ), 외향적 감정형(EF-ESFJ, ENFJ), 외향적 사고형(IT-ISTP, INTP), IF(ISFP, INFP), 이 집단들에 대해 MMPI 척도들의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 ES, EN, IS, IN 집단

조사대상 467명을 MBTI의 ES(n=126), EN(n=41), IS(n=204), IN(n=96)의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MMPI의 척도들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ES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K, Mf, Ma였고, EN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Ma였다. IS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F, D, Mf, Pt, Sc, Si였다. IN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F, D, Pt, Si였다.

2) ET, EF, IT, IF집단

조사대상 467명을 MBTI의 ET(n=114), EF(n=53), IT(n=202), IF(n=98)의 4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MMPI의 척도들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ET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K, Mf, Ma였고, EF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Ma였다. IT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F, D, Pt, Sc, Si였다. IF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는 척도는 F, D, Pt, Sc, Si였다.

표 4. MBTI 4가지 유형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의 변량분석

MMPI척도	각 집단별 Mean	F값	Scheffe
F	ES-47.73 EN-50.88 IS-52.58 IN-52.85	7.33**	IN-ES, IS-ES
K	ES-55.35 EN-52.39 IS-49.99 IN-53.25	8.01**	ES-IS
D	ES-48.48 EN-46.83 IS-58.25 IN-55.41	29.23**	IS-EN'ES, IN-EN'ES
Mf	ES-57.08 EN-53.71 IS-54.36 IN-50.31	7.24**	ES-IN, IS-IN
Pa	ES-51.63 EN-56.22 IS-54.08 IN-55.56	3.24*	N.S
Pt	ES-49.65 EN-46.51 IS-56.36 IN-54.29	18.26**	IS-EN'ES, IN-EN'ES
Sc	ES-51.09 EN-52.59 IS-55.61 IN-55.24	5.09**	IS-ES
Ma	ES-54.71 EN-58.68 IS-48.49 IN-49.74	16.02**	EN-IS'IN, ES-IS'IN
Si	ES-42.81 EN-40.85 IS-57.56 IN-54.51	75.94**	IS-EN'ES, IN-EN'ES

* p<.05, ** p<.01 N.S: Not Significant

표 5. MBTI 4가지 유형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의 변량분석

MMPI척도	각 집단별 Mean	F값	Scheffe
F	ET-48.60 EF-48.30 IT-52.20 IF-53.63	6.73**	IF-EF'ET, IT-ET
K	ET-55.18 EF-53.42 IT-51.12 IF-50.85	5.03**	ET-IF'IT
D	ET-48.05 EF-48.13 IT-56.12 IF-59.85	30.31**	IF-ET'EF'IT, IT-ET'EF
Mf	ET-57.03 EF-54.58 IT-54.01 IF-51.11	5.30**	ET-IF
Pt	ET-47.82 EF-51.15 IT-55.34 IF-56.43	17.87**	IF-ET'EF, IT-ET
Sc	ET-50.80 EF-52.87 IT-55.14 IF-56.22	5.53**	IF-ET, IT-ET
Ma	ET-54.97 EF-57.23 IT-49.06 IF-48.54	14.80**	EF-IF'IT ET-IF'IT
Si	ET-41.92 EF-43.21 IT-56.40 IF-56.96	72.74**	IF-ET'EF, IT-ET'EF

* p<.05, ** p<.01 N.S: Not Significant

4. MBTI의 16가지 유형에 따른 변량분석

조사대상 467명을 MBTI의 ISTJ(n=109), ISTP(n=41), ESTP(n=25), ESTJ(n=62), ISFJ(n=33), ISFP(n=21), ESFP(n=18), ESFJ(n=21), INFJ(n=19), INFP(n=25), ENFP(n=9), ENFJ(n=5), INTJ (n=30), INTP(n=22), ENTP(n=13), ENTJ(n=14)의 16 유형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대한 MMPI 척도들의 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MBTI의 전체 16가지 유형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난 MMPI의 척도는 F, K, D, Pt, Sc, Ma, Si 척도였다.

MMPI의 F 척도의 경우 Scheffe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ISFP, INTP, INFP, ISTP 유형의 F 척도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MMPI의 K 척도의 경우 Scheffe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ESTJ, ESFJ, ENTP, ENFP, INFJ 등의 유형의 K 척도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MMPI의 D 척도의 경우 Scheffe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ISFJ의 D척도의 점수가 ENTJ·

ESFP에 비해, ISTJ의 D척도의 점수가 ESFP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MMPI의 Pt 척도의 경우 Scheffe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ISTJ의 Pt척도의 점수가 ESTJ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MMPI의 Sc척도의 경우 Scheffe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INTP, ISFP, ISFJ, INFP 등의 유형의 Sc척도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MMPI의 Ma 척도의 경우 Scheffe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ENTJ, ENFJ, ESFP, ENFP 등의 유형의 Ma척도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MMPI의 Si 척도의 경우 Scheffe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ISFP의 Si척도의 점수가 ENTJ·ESTJ·ENFP·ENTP·ESFP·ESFJ·ESTP에 비해, ISFJ의 Si척도의 점수가 ENTJ·ESTJ·ENTP·ESFP·ESFJ·ESTP에 비해, ISTJ의 Si척도의 점수가 ENTJ·ESTJ·ESFP·ESFJ·ESTP에 비해, INTJ의 Si척도의 점수가 ENTJ·ESTJ에 비해, INFJ의 Si척도의 점수가 ESTJ에 비해, ISTP의 Si척도의 점수가 ESTJ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표6과 같다.

표 6. MBTI 16가지 유형에 따른 MMPI 하위척도들의 변량분석

MMPI척도	각 집단별 Mean	F값	Scheffe
F	ISTJ-51.26, ISTP-54.07, ESTP-50.92, ESTJ-46.13 ISFJ-51.85, ISFP-57.62, ESFP-50.44, ESFJ-46.33 INFJ-51.21, INFP-54.48, ENFP-49.67, ENFJ-46.40 INTJ-49.80, INTP-56.59, ENTP-53.15, ENTJ-51.14	3.10**	N.S.
K	ISTJ-50.43, ISTP-49.44, ESTP-52.36, ESTJ-57.39 ISFJ-50.52, ISFP-47.90, ESFP-50.44, ESFJ-57.10 INFJ-55.16, INFP-50.48, ENFP-55.33, ENFJ-45.20 INTJ-54.53, INTP-53.00, ENTP-56.46, ENTJ-49.29	3.11**	N.S.
D	ISTJ-56.96, ISTP-57.61, ESTP-48.44, ESTJ-48.44 ISFJ-61.42, ISFP-61.19, ESFP-46.56, ESFJ-50.33 INFJ-59.21, INFP-57.12, ENFP-45.11, ENFJ-50.00 INTJ-52.13, INTP-54.64, ENTP-50.00, ENTJ-43.86	7.03**	5-16.7 1-7
Pt	ISTJ-56.17, ISTP-54.37, ESTP-48.84, ESTJ-48.05 ISFJ-57.33, ISFP-59.71, ESFP-51.39, ESFJ-53.86 INFJ-53.84, INFP-54.44, ENFP-48.22, ENFJ-44.20 INTJ-52.57, INTP-56.86, ENTP-48.46, ENTJ-44.43	4.62**	1-4
Sc	ISTJ-55.48, ISTP-54.80, ESTP-52.76, ESTJ-49.02 ISFJ-56.21, ISFP-56.95, ESFP-51.44, ESFJ-54.90 INFJ-55.53, INFP-56.16, ENFP-53.00, ENFJ-49.20 INTJ-50.97, INTP-59.77, ENTP-54.92, ENTJ-51.36	2.09**	N.S.
Ma	ISTJ-49.16, ISTP-48.10, ESTP-54.40, ESTJ-53.53 ISFJ-46.61, ISFP-48.76, ESFP-58.06, ESFJ-55.71 INFJ-49.53, INFP-50.16, ENFP-56.11, ENFJ-62.60 INTJ-47.93, INTP-51.91, ENTP-54.23, ENTJ-63.07	3.98**	N.S.
Si	ISTJ-58.06, ISTP-53.34, ESTP-45.36, ESTJ-41.21 ISFJ-58.55, ISFP-61.67, ESFP-43.28, ESFJ-44.10 INFJ-54.89, INFP-52.48, ENFP-41.22, ENFJ-42.80 INTJ-57.40, INTP-52.55, ENTP-41.92, ENTJ-38.93	16.88**	6-16.4, 11,15,7,8,3 5-16,4,15, 7,8,3 1-16,4, 7,8,3 13-16,4 9-4 2-4

* p<.05, ** p<.01 N.S: Not Significant

1-ISTJ, 2-ISTP, 3-ESTP, 4-ESTJ, 5-ISFJ, 6-ISFP, 7-ESFP, 8-ESFJ

9-INFJ, 10-INFP, 11-ENFP, 12-ENFJ, 13-INTJ, 14-INTP, 15-ENTP, 16-ENTJ

5. MBTI의 8가지 선호도에 의한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의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전체 대상자 467명을 MMPI 점수에 의해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으로 구별하였다. 즉 MMPI

의 1-2, 2-3, 2-4, 2-5, 2-6, 2-7, 2-8, 2-9, 2-10 척도가 모두 65점 이상인 집단 27명을 우울집단으로 정하였다. 또한 MMPI의 모든 척도들의 점수가 35~60점인 집단 48명을 정상집단으로 정하였다.

이들의 MBTI의 8가지 선호도점수들이 우울/정상집단을 얼마나 잘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우울/정상집단을 종소변인으로 MBTI의 8가지 선호도 점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결과와 주요한 MBTI 판별변인의 판별수치와 집단별 평균값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정상집단과 우울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판별변인	판별수치	Wilks' L	F	판별율
I		.78002	20.587***	76.00
J		.72194	13.865***	78.67
E		.70125	10.083***	78.67

*** p<.001

표 8. 각 집단의 MBTI 선호도의 평균점수

MBTI 선호도	집 단	정상집단 (n=48)	우울집단 (n=27)
I		111.60(9.41)	125.00(16.21)
J		90.60(10.38)	81.04(16.79)
E		98.25(4.51)	98.67(3.90)

()안은 표준편차

정상집단과 우울집단을 판별해주는 주요한 MBTI 지표는 I, J, E였고 이들중에서 정상과 집단과 우울집단을 가장 잘 판별해 주는 변인은 I (Wilks' Lamda=.78. p<.001)로 판별율은 76.00%였다. 두 번째로 주요한 변인은 J(Wilks' Lamda=.72, p<.001)로 I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판별율은 78.67%였다. 나머지 E 지표는 유의미하게 주요한 판별변인으로 규명이 되었지만 판별율에는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MBTI의 I, J 선호도의 값이 증가할수록 우울집단에 할당

될 확률이 커지고, 반면 I와 J 선호도의 값이 감소할수록 정상집단에 할당될 확률이 커진다고 하겠다.

최종적으로 I, J, E의 3가지 변인을 고려했을 때 우울집단의 66.7%와 정상집단의 85.4%가 정확하게 할당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9와 같다.

표 9.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에 대한 할당률

실 제 집 단 사 례 수	예언된 집단	
	우울집단	정상집단
우울집단 27	18(66.7%)	9(33.3%)
정상집단 48	7(14.6%)	41(85.4%)
정확 할당률	78.67%	

논 의

MBTI의 각 지표와 MMPI의 각 척도와와의 상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E-I 지표와 MMPI 척도간에서의 유의미한 상관은 Myers, McCaulley(1985)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E 지표가 Ma와, I 지표가 D, Pt, Sc, Si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MBTI 각 지표에 대한 MMPI 각 척도 점수의 회귀분석 결과는 MBTI의 E지표에 대한 MMPI의 Si 척도의 설명 변량이 25%이며, I지표의 설명 변량은 38%여서 MBTI의 내향적인 유형이 MMPI에서도 사회적인 내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비해, 외향성은 MMPI에서 사회적 내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그밖에 MMPI 상에서 Si척도를 제외한 척도들에서는

MBTI의 각 지표에 대한 MMPI 설명변량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8가지 유형에 따른 MMPI 척도점수 변량분석 결과 융의 성격 유형에 대한 정신병리의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즉, 외향적인 감각형은 MMPI에서 K, Mf, Ma 척도에서 점수가 의미있게 높아, 융의 주장한 공포나 강박적인 병리적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한 외향적 감정형이 히스테리적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과 내향적 직관형이 건강염려증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심혜숙, 이숙미(1996)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내향적 사고형이 사고의 경직성과 완고성(Pt)을 나타낸다는 입장과 내향적 감각형이 지나치면 강박신경증(Pt)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사항이며, 심혜숙 등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가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감정형, 외향적 사고형의 특징들을 MMPI 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은 점은 박경, 김명식(1995)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반면에 내향적 감정형의 경우 F, D, Pt, Si 척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들의 우울하고, 내부화하며 불안(Pt)이 많은 특징을 반영해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상에서 외향형들의 MMPI 상의 공통된 특징은 Ma 척도의 유의미한 상승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들의 높은 에너지 수준을 반영해 준 것이며, 동시에 부적응 특성으로 본다면 감정조절의 어려움이나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행동의 비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상은 전반적으로 융의 성격 유형과 정신병

리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였으며, 구체적으로 정서적인 문제 가운데, 우울을 지닌 사람들이 MBTI 상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일 것인지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I와 J 값이 증가할수록 우울 집단에 할당될 확률이 커짐을 보여주었다. 이는 I가 우울집단에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Kelly(199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컨대 I와 T유형의 피험자가 우울한 정서 문제를 유의미하게 많이 보였다. 16가지 유형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사후검증에서 ISFP와 ISTJ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우울증이 비교적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Kelly의 연구에서는 ISFJ와 ISTJ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점도 매우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Von Zerksen(1977)도 우울한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관습적이며, 성취기준이 높은 내향형이라 보았는데, 이 점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Von Zerksen이 언급하고 있는 심리유형을 구체화하면 ISTJ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우울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밝히려는 것 뿐 아니라, 우울증의 성격적인 소인을 알아보려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이 회복이 되면 N(신경증척도)척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E(융의 내-외향척도)척도에는 변화가 없었다(Akiskal,1983). 이는 우울증의 원인이 성격적인 소인과 관계가 높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으로, 내향형의 사람들이 부적응 문제가 유발된다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와 J가 증가할수록 우울 집단에 할당될 확률이 증가하여 내향

형 뿐 아니라 판단형 유형에 속할수록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을 예측해 주고 있어서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밝혀야 할 과제이다.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자들은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격유형론을 토대로 연구해왔으며, 특히 융의 성격유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만일 융의 성격유형에 따른 부적응 증상의 가설이 좀더 밝혀지게 된다면 최근 그 사용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MBTI의 상담 및 임상 장면에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 및 상담에 MBTI의 적용키 위한 기초 자료로써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가운데 우울 증상을 뚜렷이 보이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그밖의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증상과 그들의 심리유형에 관한 연구로 확장된다면, MBTI의 임상 및 상담의 활용성을 넓히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피험자의 수는 적지 않은 편이었으나 특정 우울 증상을 보이는 피험자를 선별한 결과 27명이 확인되었다. 심리유형으로 우울증을 판별키 위한 판별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험자 수가 많을 때 더 효과적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여자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남학생들의 특성도 이와 같은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남녀 차이가 밝혀질 것이다. 동시에 젊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중년기에 나타나는 우울과 이에 따른 성격 유형 유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울증과 성격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한국가이던스
- 김정택, 심혜숙(1990). *MBTI 16가지 성격유형(성격 선호도 검사)*. 서울:한국심리검사 연구소.
- 박경, 김명식(1995).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 심혜숙, 이숙미(1996). 심리기능과 성격장애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3, 1-15.
- 이재갑(1993).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1993). 성격유형 형용사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12(2), 161-178.
- Abraham K.(1960). Notes on the psychoanalytic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manic-depressive insanity and allied conditions, in selected Papers on Psychoanalysis. New York: Basic Books. 137-156.
- Cadoret R. J., Baker M.,(1971). Dpressive disease: Personality factors in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Biological Psychiatry*, 3, 85-93.
- Chodoff, P.(1972). The depressive personality: A critical review. *Archives General Psychiatry*, 27, 666-673.
- Ekstrom, S.R.(1968). Jung's typology and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 comparision of classification. *Journal of Analitical Psychology*, 33, 329-344.
- Hirschfeld, R. & Klerman G.L.(1979). Personality attribute and affectiv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1 67-70.

- Jung, C. G.(1921). Psychological types(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translated by Hull, R.F.C.(197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lly E. J.(1991). MBTI difference between emotionally disturbed and conduct disordered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23-34.
- Linton, P. H., Kuechenmeister, C. A., & Kuenchenmeister, S.B., White,H. (1982). Personality type and symptom formation. *Research Communication in Psydhology, Psychiatry and Behavior*. 7, 463-476.
- Linton, P. H., Kuechenmeister, C. A., & Kuenchenmeister, S.B.(1986). Personality type and psychiatric symptom formation. *Research Communication in Psychology, Psychiatry and Behavior*. 11, 37-49.
- Marshall, I. N.(1968). The four function: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13.
- Metcalfe M.(1968). The personality of deressive patients, in Coppen A, Walk A(eds): *Recent development in affective disorders*. Ashford, Headley Brothers Ltd.
- Millon, T., & Everly, G. S. Jr.(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s: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N.Y.:John Wily & Sons.
- Myers, I.B., & McCaulley M. H., (1986).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erra A.V. & Pollitt. (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the symptoms of depressive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7, 211-218.
- Steinberg W.(1989). Depression: A discussion of Jung's ideas.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34, 339-352.
- Von Zerissen D.(1977). Premorbid personallity and affective psychoses, in Burrow GD(ed): *Handbook of Studies on Depression*. Amsterdam, Excerpta Medica.
- Weissman, M. M., Prusoff,B.A. & Klerman, G. L.(1978).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long-term outcome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7, 797-800.
- Whitmont, E.C.(1978). *The Symbolic Que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e Study on the Clinical Symptom of Psychological Type

Kyung Park Myung Sig Kim Kang Mun Hee

This study is on the 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types and psychopathology by analyzing the scores of MBTI and MMPI scales. The number of subjects is 467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especially the psychological types of MBTI, having the high scores of MMPI scales denoting depressive symptom, were investigated. First, we studied the related previous studies, and the used statistical methods are the correlational analysis on the scores of MBTI and MMPI, mutiple regress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discriminant analysis for discriminating depressive group from normal group.

E preference of MBTI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Ma scale of MMPI, and I of MBTI was D, Pt, Sc, Si of MMPI. Rigidity of IT(Introverted Thinking Type), obsessional symptom of IS(Introverted Sensation Type), and depressive tendency of IF(Introverted Feeling Type) was identified. But other psychological types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pecific symptoms. More scores of I,J preference of MBTI, more the probability of being discriminated as depressive group will b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of 8 psychological types of MBTI and psychopathology, and the psychological types of depressive group was studied, but in the future the relation between various psychological types and clinical groups are to be studied.